

#철학 2 - 엠마누엘 레비나스(1906~1995)

타자의 윤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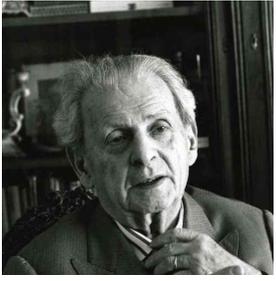




월남전의 참상과 부당성을 상징하는 네이팜탄 희생자 김 폭(kim Phuc)양의 나체사진.
1973년 풀리처 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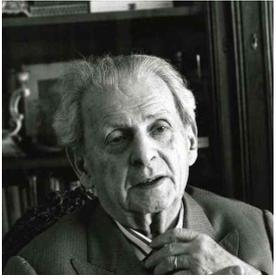
© UN Photo/RB/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한국 난민
소녀(1950년 12월 1일)



#1. 유대인, 러시아 문학, 독일 현상학, 프랑스 철학

- 프랑스의 유대계 철학자 : 유대인 부모에게 성경과 탈무드를 교육받음
- 동유럽 리투아니아 출신 : 러시아 문학에 정통함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 수업을 받음
- 1930년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이론>으로 박사학위 받음 : 프랑스에 최초로 후설과 하이데거 철학을 소개함. “네 문화의 철학자!”

- 현상학
- 후설과 사르트르 ‘의식’
 - 하이데거 ‘존재’
 - 레비나스 ‘타자’



#2. 2차 세계대전, 나치즘, 아우슈비츠 참사

- 프랑스 군인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 포로가 됨.
- 가족 모두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함.
- 이후 평생 독일 땅을 밟지 않음.
- 《존재에서 존재자로》(1947) : 포로수용소에서 집필, 개체성을 없애려는 존재론의 전체주의에 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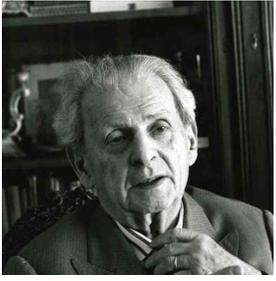


철학의 '제1의 과제'는 '존재'가 아니라 '윤리'이다.

“죽이지 말라!”

“책임은 자유에 선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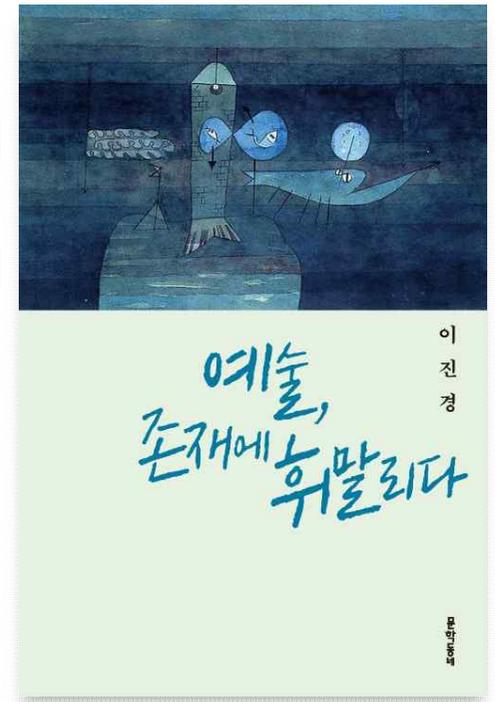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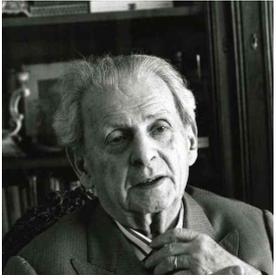
#3. 존재론 비판

“서양철학은 대체로 존재론이었다.”

- 존재론은 한마디로 타자(the other)를 동일자(the same)의 영역으로 환원하는 이론
 - 존재론은 모든 것을 예외 없이 전체 속에 체계화하는 전체성의 철학
 - 동일자 : 물질, 신, 역사, 절대정신, 자아, 국가 등 존재자 전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지평
 - 존재론은 ‘힘의 철학’이다. 힘의 행사가 곧 자유다. 힘의 행사로서의 자유는 전체성의 이념에서 완성된다.
- “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의 소유요 현실의 정복이다. 철학의 기초로서의 존재론은 힘의 철학이다.”

서양철학의 존재론은 동일자의 존재론이다.
최근 이진경의 존재론은 타자의 존재론이다.





#4. 타자, 얼굴

- 타자는 나를 지배하는 강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험벗은 자들이며, 낯선 '얼굴'로 다가오는 '무한'한 존재이다.
- 주체는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응답하는 주체'이다. (타자의 우선성)
- 동일화의 세계는 '유한의 세계'이고, 타자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이다.(무한으로서의 타자)
- 무한으로서의 타자는 우리의 한계와 틀을 넘어서는 '초월(transcendence)'이다.
- 종교는 나와 같은 동일자끼리의 관계가 아니고 타자와의 관계이다.
- 타자는 나와 다르지만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 없다.
- 타자와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즉 '상호성', '등가성'을 넘어선다.
- 타자(신)은 우리에게 '얼굴'로 다가온다. 그것도 '발가벗은 얼굴'로 다가와 우리에게 호소하고 명령한다.

라캉의 (대)타자는 지배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레비나스의 타자는 낯선 자의 얼굴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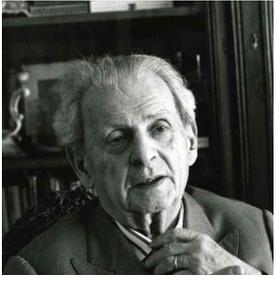


“얼굴을 통해서 존재는 더 이상 그것의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앞에 나타난다. 얼굴은 열려 있고, 깊이를 얻으며,
열려 있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얼굴은 존재가 그것의 동일성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방식이다.”

“얼굴은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한 존재가 우리와 접촉하는 방식이다.
그것을 통해 얼굴은 모든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타자는 타자로서 높음과 비천함의 차원에 스스로 처해 있다.
영광스런 비천함. 타자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동시에 나의 자유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는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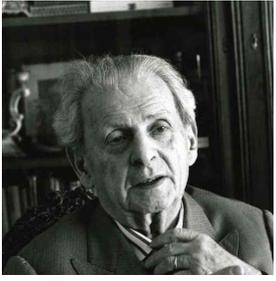
- 《존재와 다르게》에서



#5. 욕망

- 라캉에 따르면 자아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자아를 소외시킨다
-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욕망은 자아를 뛰어넘어 타자와 관계를 맺고 나와 타자의 경계를 허무는 것. 곧, 자아의 한계, 폐쇄적 '전체성'을 극복하는 길
- 욕구(need)는 당장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욕망(Desire)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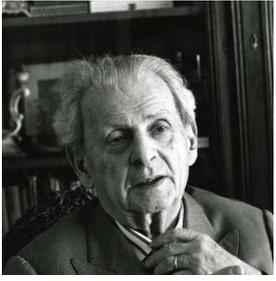
라캉의 욕망은
지배자(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욕망이지만
레비나스의 욕망은
타자와 경계를 허물면서 미래(형이상학, 무한)로 진입하는 욕망이고
들뢰즈의 욕망은
억압 이전에 삶의 원초적 모습으로 생산하는 욕망이다.



#6. 주체성 - 향유, 책임, 환대, 대속

- 하이데거는 ‘불안’이나 ‘죽음을 향한 존재’ 등 인간의 존재 의미를 한계짓고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
- 레비나스는 이에 반해 인간은 불안에서 출발하지 않고 즐거움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즉, 향유(享有)이다.
- 자연적 향유 : 기본적인 요소(공기, 물, 먹거리)에 대한 향유, 불안정성
- 노동과 소유 : 동일성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소유하려함. 이해타산적 점령과 독점
- 그리하여 안과 밖이 구분된다. 동일자와 타자
- 밖(타자, 낯선 자이자 이웃)의 호소에 응답(response)하는 것이 책임(responsibility)이다. (나의 수동성)
- 테두리에 갇힌 죽은 삶이 아니라, 타자를 내 집으로 맞아들이는 환대(hospitality)의 삶을 살아야한다.
- 이 환대는 칸트가 말하는 조건적(give & take), ‘상호적’ 환대가 아니라 ‘무조건적’ 환대이다. (계약자가 아니라 부모자식처럼)
- 나는 타자에게 사로잡혀 대속적 주체가 됨을 통해 익명적인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타인의 고난과 그가 겪는 불의에 책임을 지고 대신 짐을 짊어지는 존재로 돌아간다.(메시아론)

향유(享有, jouissance)의 주체성 : 개별화의 원리 - 이기적, 전체적
환대(歡待, hospitalité)의 주체성 : 타자와 관계의 원리 - 책임적, 윤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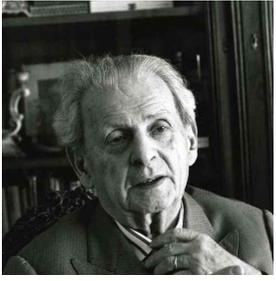


#7. 유대교, 메시아

- 메시아는 고난 받는 종이며 타인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메시아는 타인의 과오와 고통조차 대신 짊어지는 존재다.
- 타인을 위한 불모로, 인질로 대신 짐을 짊어지는 대속자로 오는 메시아는 저 바깥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자, '나(moi)' 자신이다.
- 이 메시아야말로 책임을 지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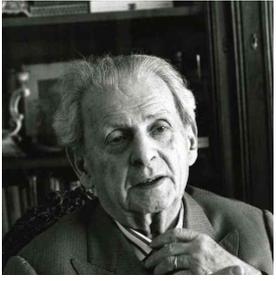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



#8. 무한자(inf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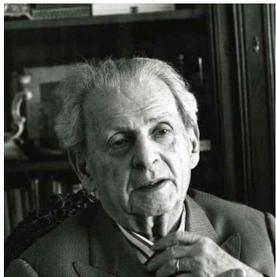
- 무한자의 이념은 나의 주도권과 무관하게 나에게 일종의 계시로 주어진다.
- 무한자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한 것'이고, 우리의 이해와 '불일치'하는 것이며, 가늠할 수 없는 '척도의 불가능성에 의한 척도'이다.(유한의 한계를 드러내는, 유한에 선행하는 개념)
- 무한자의 이념은 우리의 의식을 회의하게 하고, 의식을 초월하며,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 무한자의 이념은 얼굴로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면서, 초월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문제삼고 질책한다.
- 무한자는 역사의 부당함과 그 부당함에 연루된 나의 책임을 보게 한다.(윤리적 힘으로 작용)
- 무한자의 이념은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 무한자는 존재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 질서 너머, 존재 저편에 있다.



#9. 생산성, 에로스

-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생산성 또는 비옥성에서 찾아야 한다.
- 생산성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 수태가능한 것이다.
- 생산성을 통해 시간은 무한성의 차원, 절대적 미래, 폭력과 죽음에 맞서는 무한한 잉여의 차원을 얻을 수 있다.
- 에로스는 여성적인 것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다.
- 에로스는 감추어진 것을 찾으려는 몸짓이며, 이 몸짓은 애무로 나타난다.
- 애무는 무엇인지 모르면서 손에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미끄러지는 어떤 것을 만지는 행위이다.
- 감추어진 것, 전적으로 타자적인 것의 발견은 아이의 출산을 통해 실현된다.
- 감추어진 것은 이제 그 익명성에서 해방되어 이름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얼굴을 가진다.
- 아이는 '타자가 된 나(moi etranger a soi)'이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 1906~1995) 약사(略史)

1906년 리투아니아에서 유대인 부모 아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23년 프랑스로 유학해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수학했고, 1928~1929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후설과 하이데거로부터 현상학을 배운 뒤, 1930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9년 프랑스 군인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종전과 함께 풀려났다. 1945년부터 파리의 유대인 학교(ENIO) 교장으로 오랫동안 일했다. 이 무렵의 저작으로는 『시간과 타자』(1947), 『존재에서 존재자로』(1947), 『후설과 하이데거와 함께 존재를 찾아서』(1949) 등이 있다.

1961년 첫번째 주저라 할 수 있는 『전체성과 무한』을 펴낸 이후 레비나스는 독자성을 지닌 철학자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1974년에는 그의 두 번째 주저 격인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가 출판되었다. 그 밖의 중요한 저작 들로는 『어려운 자유』(1963), 『관념에게 오는 신에 대해』(1982), 『주체 바깥』(1987), 『우리 사이』(1991) 등이 있다.

레비나스는 기존의 서양 철학을 자기중심적 지배를 확장하려 한 존재론이라고 비판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 하는 윤리학을 제1철학으로 내세운다. 그는 1964년 푸아티에 대학에서 강의하기 시작하여 1967년 낭테르 대학 교수를 거쳐 1973년에서 1976년까지 소르본 대학 교수를 지냈다. 교수직을 은퇴한 후에도 강연과 집필 활동을 계속하다가 1995년 성탄절에 눈을 감는다